

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168억 확보

금일읍 화목리, 국내 최대 해조류 산지 거점 조성 추진

완도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특화재생형)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168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평가하여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진 방안은 신규 사업에 반영하고 실시계획의 완성도가 높고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군은 개편 방향에 맞게 발

르게 대응했다.

군은 다시마를 전국 대비 70%를 넘게 생산하는 금일읍에 해조류 6차 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고부가가치의 해조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조류, 선, 해양 관광 등을 도시재생 모델로 삼아 공모 사업을 준비했다.

특히 40년 넘게 금일 다시마를 구매하며 인연을 맺은 ㈜농심과 해조류 특화 상품 기술 컨설팅,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무 역량도 총 동원하였다.

11월에는 전남도 1차 평가를 통과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2개 자

치단체 사업을 평가하여 완도군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업 선정으로 2023년부터 4년간 168억 원(국비 100, 도비 16, 군비 51, 자부담 1)을 투입하여 금일읍 화목리 공공도서관 앞 군유지 등을 활용하여 해조류 특화 공간을 건립하고, 해조류 특화 브랜드 창출로 금일읍을 '국내 최대 해조류 산지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해조류 산지 거점이 조성되면 지역 자원의 부가가치 확대를 통해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시 활력 회

복, 사업·창업·운영 등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난 2018년 소규모 재생사업(완도읍 향동리)을 시작으로 2019년 소규모 재생사업(완도읍 중앙리),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완도읍 중앙·주도·서성·용암리), 20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완도읍 노두리) 등 총 12건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완도=이두식 기자

무안,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군민관심정보 미리 공개 등 고객관리 분야 높은 평가

무안군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외부 전문기관 위탁평가를 통해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해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무안군은 군민 관심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사전정보 충실성,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 수요분석 등 고객관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공개 업무추진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영암군 민원해결사 소통폰 '호응'

개통 4개월간 228건 접수... 3일 이내 85% 해결

영암군이 민선8기 출범 후 군민들의 다양한 정책이나 민원불편사항을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010-9681-8572)'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영암군에 따르면 누구나 핸드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암군에 불편민원, 고충, 제언 등을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표출할 수 있는 '소통폰'이 개통 4개월 동안 접수한 민원은 228건에 달한다.

접수된 민원은 생활 속의 작은 불편사항인 생활민원분야 90건, 도로개선, 상수도 등 정주여건 민원분야 61건, 문화관광분야 20건, 복지, 농업, 일반행정 분야 등 57건이다.

접수된 민원의 85%인 194건은 3일 이내 처리가 완료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접수 안건 중 중·장기적인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심층여부 검토 및 차기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어 적극행정, 신뢰행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주인이 되는 영암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제안 등 다양한 군민의 소리가 수렴되고 있는 소통폰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신안,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1960명 모집

신안군은 2023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경로당 청소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 등 15개 사업에 자체 군비 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196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참여는 공익형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2월부터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사업 유형에 따라 월 30시간 또는 60시간을 활동하고 월 27만원에서 최대 71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박우량 군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해남군-영산강사업단, 농업용수 공급 업무협약 체결

가뭄대응 적극 협력

해남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과 농업용수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뭄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은 15일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신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안도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군의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영산강사업단에서 관리하는 황산·문내·화원·맹진양수장의 가뭄 기간을 당초 5~9월(수도작 기간)에서 3~11월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수도작 기간에 소



요되는 비용은 관리면적에 따라 요금을 분담하고, 연장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남군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한해에 대비하기 위해선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영농할 수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강진 '폼생폼사 강진향교' 문화재청장상 수상

고품격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 높이 평가

강진군과 강진문화원이 추진한 '폼생폼사 강진향교'가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이 지역에 잠자고 있던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4일 대전 ICC에서 5개 분야 27건의 우

수사업 시상이 진행됐다.

강진군은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향교·서원문화재 분야'에서 시행된 108개의 사업 중 7가지 지표별 세부기준에 따른 현장점검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폼생폼사 강진향교 프로그램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성인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다. 2022년 11월 말 기준 9천 4백여 명의 누적 이용객을

기록했다.

특히 '다산인(人·in) 강진향교', '다 같이(多 가치) 강진향교', '삼시 세끼 힐링향교' 등 지역의 역사성과 스토리 중심의 우수한 체험 교보재를 개발해 자생력을 갖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대상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강진향교를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한홍수 기자

목포, 주말 휴일 반납 제설작업 '총력'

제설차량 총기동·전직원 비상소집 교통불편 최소화

목포시가 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제설작업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전남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목포에는 17~18 새벽까지 12cm가 넘는 눈이 내려 시는 주말 동안 24시간 재난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교통불편 최소화에 인간함을 쏟고 있다.

목포는 지난 17일부터 내린 소나눈에 영하 4도 이하의 강한 한파까지 겹치면서 도로에 쌓인 눈이 쉽게 녹지 않는 상황이다. 시는 17일 20시부터 제설차량 6대를 가동해 주요 간선도로와 경사로에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는 소형제설기 5대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8일 오전 6시부터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하고 담당 구역별로 배치해 갓길,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주변의 눈을 치우고 있다. 시는 적설량이 1~5c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제설단을 통해 대응하고, 대설주의보·경보 및 5cm 이상 등 비상시에는 전직원을 투입해 인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등을 인력으로 제설한다.

시 관계자는 "빙판길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수도와 보일러 배관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당부드린다. 또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목포=김근호 기자

황토광범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